

2026<sup>판</sup>

# 구원 수능국어

##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2025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표지 안쪽

2026<sup>판</sup>

# 구원 수능국어

## 원리와 유형

언어[문법] 편

이성호 저

- 2025학년도 수능형 준 킬러 문항 대폭 수록
- 문항 유형별 문제 제시로 취약 유형 완벽 해결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 제시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구원 수능국어

이 책을 지은이

##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구원 수능국어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서편> <언어편> <화법과 작문편> 집필 (구원 수능국어 간행)

구원 수능국어 못 본 시 해석법 (구원 수능국어 간행)

수능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 언어[문법]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26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일곱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실전모의고사 등의 일곱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언어[문법]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신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배경 지식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단 기간에 지식적 측면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 차례

제1부 언어 문법과 어문 규정 ..... 7

☞ 2025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8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 16

유형문제 31

02. 형태론 ..... 34

유형문제 60

03. 통사론 ..... 65

유형문제 89



# 차례

04. 담화와 의미의미 변화국어 생활 ..... 94

유형문제 104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 108

유형문제 124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 128

유형문제 154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 161



#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쑤우우우우우** 올라갑니다.

## 가. 제1부 언어[문법]과 어문 규정

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신고 풀이 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원 수능국어 **출제 경향**

구원 수능국어 **원리**

구원 수능국어 **사고 방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06** 어문규정[예제]

**5-2** 국어의 변천유형문제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데 '새해맞이'는 [새(관형사)+해(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맞(동사의 어간)+이(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관형사)+몫(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하(동사 어간)+다(동사 어미)](의미상 서술어)의 형태로 분석되므로 ㉔, ㉕의 두 원리에 부합하다.

● **오답 비루기** '두말없이'는 [두(관형사)+말(후행하는 명사)](의미상 주어)+[없(형용사 어간)+이(부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는 [숨(동사의 어간)+은(관형사형 전성 어미)](관형어)+그림(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찾(동사 어간)+기(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 **매답** ④

## 나. 제2부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구원 수능국어 원리로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제1부

# 언어[문법]와 어문 규정



## CE 2025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언어[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중성가죽용, 즉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의 세 문헌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 ‘주의’(중의)처럼 이어 적기도 하고, ‘중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ㅇ, ㄴ, ㅁ, ㄹ, ㅅ’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일 때 끊어 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다만, ‘쑤늘’, ‘말쑤물’, ‘우수물’에서는 이어 적기가 보인다.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세 문헌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ㄷ, ㅂ, ㅅ, ㅇ, ㅅ’을 썼는데, 이 가운데 ‘ㅅ’은 ‘나라 일흠’(나라의 이름), ‘님금 마음’(임금의 마음), ‘바람 우희’(바다의 위예)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ㅁ, ㄹ’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상절』은 사잇소리 표기에 ‘ㅅ’을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ㅇ’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촛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사잇소리 표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세 문헌과 이후 문헌에서의 사잇소리 표기 통일 및 현대 국어의 사잇소리 표기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

한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세 문헌

한편 『용비어천가』는 ‘빙’을 가진 ‘ㄷ뵈다’(되다), ‘ㅎ뵈사’(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ㄷ뵈다’는 ‘ㄷ뵈다’나 ‘ㄷ외다’로 썼고 ‘ㅎ뵈사’는 ‘ㅎ오사’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ㄷ외다’, ‘ㅎ오사’로만 썼다.

‘빙’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세 문헌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은 팔중성가죽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 ② ‘오늘’(오늘)과 ‘날’ 사이의 사잇소리 표기는 『용비어천가』에서는 ‘△’, 『월인천강지곡』에서는 ‘ㅅ’을 썼다.
- ③ 현대 국어 ‘바닷물’의 ‘ㅅ’ 표기는 중세 국어 사잇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 ④ 중세 국어 한자음이 ‘툰’인 ‘天’은 『석보상절』에서 ‘天툰’, 『월인천강지곡』에서 ‘툰天’으로 적었다.
- ⑤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나타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제시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용비어천가』는 ‘빙’을 가진 ‘ㄷ뵈다’(되다), ‘ㅎㅅㅅ’(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ㄷ뵈다’는 ‘ㄷ뵈다’나 ‘ㄷ외다’로 썼고 ‘ㅎㅅㅅ’는 ‘호오ㅅ’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ㄷ외다’, ‘호오ㅅ’로만 썼다.”라는 구절로 보아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ㅎㅅㅅ’, ‘호오ㅅ’ 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중성가죽용, 즉 ‘ㄱ, ㅇ, ㆁ, ㄴ, ㅂ, ㅃ, ㅅ, ㅆ’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라는 구절에 중성 ‘ㅍ, ㅌ’이 없으므로 적절하다. ②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ㆁ, ㅂ, ㅅ, ㅇ, △’을 썼는데, 이 가운데 ‘△’은 ‘나라 일흠’(나라의 이름), ‘님궘 ㅁ슴’(임금의 마음), ‘바궘 우희’(바다의 위에)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ㅃ, ㄷ’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춧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한자를 적을 때는, ~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 36. [A]와 &lt;자료&gt;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 료 |

- |  |            |
|--|------------|
| ○ 저녁 ㉠ <u>그새</u> ( <u>즈</u> + <u>애</u> ) 건너가사<br>[저쪽 가에 건너가시에]                       | - 『석보상절』   |
| ○ 뫼화 그르세 ㉢ <u>담아</u> ( <u>담-</u> + <u>-아</u> )<br>[모아서 그릇에 담어]                       | - 『월인천강지곡』 |
| ○ ㉡ <u>누네</u> ( <u>눈</u> + <u>에</u> ) 빛 봄과<br>[눈에 빛 봄과]                              | - 『석보상절』   |
| ○ 쏜 살이 세 날 ㉣ <u>뽕썩</u> ( <u>뽕</u> + <u>썩</u> ) 빼어디니<br>[쏜 화살이 세 개 북만 꿰어지니]           | - 『월인천강지곡』 |
| ○ 너희 ㉤ <u>스승</u> 니물( <u>스승</u> + <u>-님</u> + <u>을</u> ) 보습고져 흐노니<br>[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석보상절』   |

- ① ㉠은 『용비어천가』에서 ‘그새’로 적혀 있겠군.  
 ② ㉢은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③ ㉡은 『월인천강지곡』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④ ㉣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뽕을’로 적히겠군.  
 ⑤ ㉤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스스이’나 ‘스승이’로 적히겠군.

## New Theory &amp;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구절로 보아 ‘뽕’에 조사 ‘을’과 결합하면 이어 적기를 하여 ‘뽕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인 ‘ㅇ, ㄴ, ㄷ, ㄹ, ㄷ’일 때 ~ 끊어 적기를 하였고”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 ‘주의’(중의)처럼 이어 적기도 하고, ‘중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예답 ④

### 37.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 단풍 철 : 철 성분)나 연관성이 있는 ㉢다의어 관계(㉣ 머리를 깎다 : 배의 머리)에 놓인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때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

- ① ㉠ [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 ② ㉢ [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
- ③ ㉤ [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
- ④ ㉤ [ 배우가 얇은 화장을 했다.  
아이가 얇은 잠에 들었다.
- ⑤ ㉣ [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에 맞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문장에서 '듣지'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하는 타동사이고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라는 문장에서 '듣지'는 주어만 필수 성분으로 하는 자동사이므로 두 동사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른 다의어 관계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난로에 불을 피웠다.'라는 문장에서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해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을 의미하고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라는 문장에서 '불'은 열렬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정열이나 감정의 비유하므로 두 단어는 다의어 관계이다. ②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라는 문장에서 '치'는 '붓연필 등으로 점·줄을 나타내거나 그림이 되게 하는'이란 의미이고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치'는 '손이나 물건으로 놀이나 운동을 하는'의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④ '배우가 얇은 화장을 했다.'라는 문장에서 '얇은'의 반의어는 '짙은'이고 '아이가 얇은 잠에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얇은'의 반의어는 '깊은'이어서 반의어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⑤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왔다'의 필수 성분은 주어인 '봄이'이고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라는 문장에서 '왔다'의 필수 성분은 주어인 '성공은'이어서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이나 '왔다'의 의미가 각각 '계절·기한 따위가 됐다', '유래했다'란 의미여서

두 단어는 다의어 관계가 아니라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해답 ③

###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 덧쌍닌[덧싼닌]      ㉡ 속력도[송녁도]      ㉢ 읽엇고[일겅꼬]  
 ㉣ 겉웃만[거돈만]      ㉤ 맞붙임[만뿌침]

-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구체적 사례에 적용된 제시된 원리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ㅅ>ㄷ, ㅎ>ㄴ’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변화이다. 따라서 ‘ㅎ>ㄴ’으로 교체되는 것은 조음 위치·방법 변화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②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ㄱ>ㅇ, ㄴ>ㄹ, ㄷ>ㅌ’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방법 변화와 조음 위치·조음 방법 불변 등이다. ③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ㅆ>ㄷ, ㄱ>ㄱ’ 등으로 각각 조음 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불변이다. ④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ㅌ>ㄷ, ㅅ>ㄴ’ 등으로 각각 조음 위치·방법 불변, 조음 방법 변화이다. ⑤ ㉤에서 일어난 자음 교체는 ‘ㅈ>ㄷ, ㅂ>ㅃ, ㅌ>ㄷ’ 등으로 각각 조음 위치·방법 변화, 조음 위치·방법 불변, 조음 위치·조음 방법 변화이다.

✓ 해답 ①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 → 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 자 료 |

-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 ① ㉠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② ㉠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③ ㉡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구체적 사례를 제시된 원리에 맞춰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라는 원칙과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라는 구절로 보아 ㉠에서의 ‘하자’는 ‘해요’, ‘합시다’, ‘하자’ 등의 상대 높임 종결 어미가 한 가지 형태로 통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배류기** ① ㉠을 그가 말한 당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로 쓰일 수 있다. ③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라는 발화에서 ‘자기’를 2인칭 지시 대명사 ‘너, 자네, 너희, 너희들’, 당신, 당신들, 그대, 여러분’ 등으로 바꾸면 <보기>의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라는 내용에 따라 청자가 1인칭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학생들’이란 3인칭 청자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2인칭 지시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없다. ④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라는 원칙과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라는 구절로 보아 ㉡에서의 ‘좋아한다’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해’ 등의 상대 높임 종결 어미가 한 가지 형태로 통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등으로 쓰이므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매 답** ②

※ 다음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푸근 : 안녕하세요?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공학 박사이신 전선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선 :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푸근 :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전선 :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근 :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 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전선 : 그랬군요. 우리나라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차이가 있죠.

가을비 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요.

푸근 : 가을비 님, 맞아요. 번거롭죠. 전선 님,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가요?

전선 :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푸근 :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전선 : 화면에 나오는 A형, B형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C형, F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 아침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왜 그렇죠?
- 풍경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침 님, 풍경 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1986년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N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미 독자적으로 표준을 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푸근 :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원래 A형을 쓰지 않았나요?

전선 : 네. 11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A형을 썼었어요. 그러다 열악한 전력 사



정을 고려해서 110V에 비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은 220V로 바꾸는 승압 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와 콘센트’도 C형, F형으로 바뀌죠.

- **눈썹달** 220V로 전압을 높이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은 왜 220V로 안 바꾼 거죠?
- **해맑음**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220V용으로 바꾼 기억이 나요. 그럼 A형에서 C형이나 F형으로 바뀐 거죠?

**전선** : 해맑음 님, 맞습니다. 눈썹달 님, ©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서요. 우리도 30년 넘게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 **지환아빠** 근데 ‘플러그와 콘센트’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처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였나요?

**푸근** :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전선 님 일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선** : 감사합니다.

**푸근** : 지환아빠 님,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는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할게요. 바로 올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 **푸근** (자료) -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  
(링크 주소 : <https://k34imj.co.kr/1fjg>)

©오늘 영상은 제 채널의 ‘다시 보기’에 올려 두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② b : 보조 용언 구성 ‘-다 보다’와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플러그와 콘센트’ 모양의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 ③ c : 조사 ‘밖에’와 형용사 ‘없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큼을 이중 부정을 통해 강조한다.
- ④ d : 종결 어미 ‘-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e : 보조 용언 구성 ‘-어 두다’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미, 조사 등의 용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연결 어미 ‘-다가’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③ 조사 ‘밖에’는 단독의 의미이므로 형용사 ‘없다’와 같이 사용되어도 이중 부정의 의미가 없다. ④ 종결 어미 ‘-네’는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⑤ e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 **매답** ②

##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 ① 언어의 본질

####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 개념어·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 ② 언어의 특성

####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땀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땀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재목이 되고 재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 개념어·어휘·크리닉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예사소리 피열음 -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어   ……	자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출문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 2. 음운론

###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꿈’과 ‘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눈’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ㄱ과 ㄴ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 (1) 분절 음운[음소]

##### ① 자음

조음 위치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인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ㅜ	ㅡ	ㅛ
중모음	ㅔ	ㅟ	ㅝ	ㅞ
저모음	ㅚ		ㅜ	

####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斗]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잎 → [입]	
	자음 동화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li> <li>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li> </ul>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뒤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솜이불 → [솜니불]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ㄸ, ㅊ,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ㄸ, ㅊ,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ㅊ’로 바뀌거나 ‘ㄱ, ㄷ’가 ‘ㅏ, ㅑ’ 앞에서 ‘ㅑ, ㅓ’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 ㄱ → 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ㅇ’와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피(산)	섬	벗압(뻬)		
가획자	콩	뒤(띠)	벌	조희(중이)			
		고티	파	채	부형		
이체자	리홀(바구레)					어름	이스(아우)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특/드리	물/그력(기러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브섭
재출자	쇼	남상(거북의 일종)	슈름(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굼벵(굼벵이)	반되(반뉘뉘이)	간(갓)
	범	섭(쌀)	жат	별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고티’(>고치)나 ‘덜’(>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섬’(>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드리’(>다리)나 ‘특’(>턱)처럼 ‘·’가 변한 유형, ㉢‘물’(>물)이나 ‘브섭’(>부억)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ㅇ>ㄱ’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부’(>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갈’(>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ㅇ’으로 표기함.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설명한 내용에 맞게 사례에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아음 이체자는 ‘ㅇ(엠티음)’으로 ‘러울’로 예시되어 있는데 ‘러’는 초성에 반설음자 ‘ㄹ’을, ‘울’은 종성자에 반설음자 ‘ㄹ’을 쓴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② ‘ㅇ(이음)’은 용자례의 종성에 쓰이지 않았다. ‘콩, 남상, 굽병’ 등에 쓰인 종성은 ‘ㅇ(이음)’이 아니라 ‘ㅇ(엠티음)’이다.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는 ‘ㅇ(여린 히음)’으로 후음에 속한다.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브쉽’의 ‘쉽’인데 이는 반치음 이체자 ‘ㄷ’을 초성자로 순음의 가획자 ‘ㅂ’을 종성자로 쓴 것이다.

✓ 해답 ④



**02**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 : ㅍ]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               |
|--------------|---------------|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 학교가 크지[크지] |               |

학생 :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안겨라’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안-(어간), ‘-기(피동 접미사), ‘-어라(명령형 종결어미)’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에 피동 접사가 결합한 것이어서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푼다’는 ‘푸(어간, ㄹ 탈락), ‘-ㄴ다(현재 시제 평서형 종결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② ‘여름도’는 ‘여름(명사), ‘-도(조사)’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맞다. ③ ‘잠가’는 ‘잠그(어간, ㄹ 탈락), ‘ㅈ(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ㄹ’과 ‘ㄱ’이 모두 어간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가 맞다. ⑤ ‘크지’는 ‘크(어간), ‘-ㄴ지(종속적 연결 어미)’ 형태로 형태소 분석이 되므로 ‘ㄴ’과 ‘ㅈ’이 어미로 결합된 소리가 맞다.

✓ **해답** ④

## 03 &lt;보기&gt;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잎[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활+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닙]’에서의 [닙]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 New Theory &amp;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받침 ‘ㄱ’을 ‘ㅇ’으로 교체한 것이고, ‘국[국]’과 [궁]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같다. ② ‘집일[집닙]’에서의 [닙]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단일어 ③ 형인 ‘일[일]’과 다르게 ④ 형으로 바뀌었다. ③ ‘함[함]’과 [캄]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⑤ 음절 유형이 [화]는 ② 형이고 ‘활[활]’은 ④ 형으로 서로 다르다.

✓ 매 답 ④

0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ㅔ	ㅕ	ㅑ	ㅊ
저모음	ㅐ		ㅓ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모음의 체계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A]에 제시된 어휘를 최소 대립쌍으로 짝지어 보면 ‘쉬리/소리’에서 ‘ㄱ/ㅇ’, ‘마루/머루’에서 ‘ㅏ/ㅑ’, ‘구실/구슬’에서 ‘ㅣ/ㅆ’이고 ‘모래’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없다. 최소 대립쌍인 ‘ㄱ/ㅇ’, ‘ㅏ/ㅑ’, ‘ㅣ/ㅆ’를 [B]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적용해 보면 ‘ㅏ/ㅑ/ㅣ’의 세 개의 평순 모음을 찾을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에 어긋난다.

✓ **매답** ③

## 05 &lt;보기&gt;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흡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 New Theory &amp;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 닳는은 ‘랴’이 ‘르’로 교체되어 ‘달는’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달른’이 된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 ‘흡일’은 ‘리’이 ‘기’로 교체되고 ‘니’가 첨가되어 ‘홍닐’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홍닐’이 된다. 이 때 ‘흡일’의 음운의 수는 ‘흡’이 ‘흡으로’ 쓰일 때 ‘르’와 ‘기’가 각각 발음되므로 6이고 ‘홍닐’의 음운의 수도 6이다. ㉢ ‘발야구’는 ‘니’가 첨가되어 ‘발랴구’가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발랴구’가 된다.

✓ 해답 ②

## 06 &lt;보기&gt;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  
**[가]**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중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 또한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중  
**[나]**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얇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칙에 알맞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을고'의 음운 변동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을고 → 읍고 → 읍고 → 읍꼬'의 형태가 된다. 즉 결합침 'ㄷ'에서 'ㄹ'이 탈락되고(나) '교'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어 '비'이 된다.(가) '비'과 '기'이 만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기'은 '끼'으로 교체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축약에 해당한다. ② 연음법칙과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해당된다. ③ 파열음의 예사소리로의 교체에 해당한다.(가) ④ 축약에 해당한다.
- ✓ 해답 ⑤

07 다음의 ㉔에 해당하는 것을 ㉑~㉓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㉔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㉑ 기+{어 → [기여]
- ㉒ 살피+{어 → [살피]
- ㉓ 배우+{어 → [배워]
- ㉔ 나서+{어 → [나서]

- ① ㉑, ㉒
- ② ㉑, ㉓
- ③ ㉒, ㉓
- ④ ㉒, ㉔
- ⑤ ㉓, 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㉒ '살피+{어 → [살피]'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ㅣ'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ㅚ'가 된 예이고, ㉓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ㅜ'와 'ㅣ'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ㅜ'가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㉑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ㅣ'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ㅣ'가 'ㅟ'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㉔의 예가 된다. ㉔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ㅣ'가 탈락하는 예이다.
- ✓ 해답 ③

## 08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놓지 → [노치], 만형 → [마형]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 New Theory &amp;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뜨’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뜯’의 ‘ㄷ’이 ‘ㅎ’을 만나 ‘트’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09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p>(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li> <li>•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li> <li>•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li> </ul>	<p>(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눈</th> </tr> <tr> <th style="width: 50%;">길게 발음할 때</th> <th style="width: 50%;">짧게 발음할 때</th> </tr> <tr> <td>눈이 펄펄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뀔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만 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만 감정과는 무관하다.

✓ **해답** ②

## 10 밑줄 친 말이 &lt;보기&gt;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 New Theory &amp;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해답 ①



## 01 &lt;보기&gt;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 02 &lt;보기&gt;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않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닿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쌍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a                  b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c                  d                  e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ㅌ, ㄸ, ㄱ’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보기 2|

	어간	어미	표기	발음
ㄱ.	낱-	-고	낱고	[나코]
ㄴ.	않-	-아	않아	[아나]
ㄷ.	지-	-어	저	[저]
ㄹ.	돌리-	-어	돌려	[돌려]
ㅁ.	오-	-아서	와서	[와서]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히읃 → [히을]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 [술례]
④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쉼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젓하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ㅃ,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막따]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문제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ㅊ’은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실타]의 ‘ㄹ’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ㄴ’은 비음이다. ④ [잘따]의 ‘ㄷ’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따]의 ‘ㄷ’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항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ㅈ’이 ‘ㅉ’으로 교체되었다. ② ‘ㄱ’이 ‘ㄲ’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ㄱ’이 ‘ㄲ’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는 ‘약이 [낙]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엿’도 [콩냇]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② ‘복낙이 [봉낙]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뭇이 [물]으로 바뀌었다. ④ ‘압이 [납]으로 바뀌었다. ⑤ ‘물납이 [문납]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항 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않아’는 [아나]로 발음되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과 ‘ㄱ’이 만나 ‘ㄲ’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ㄱ’과 ‘ㄴ’이 만나 ‘ㄲ’으로 축약되었다. ⑤ ‘ㄱ’과 ‘ㄴ’이 만나 ‘ㄴ’으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항 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구원 원리로 정답 찾기 ‘젓하다’에서는 ‘ㅈ’이 ‘ㅎ’을 만나 ‘ㅊ’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ㄷ’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ㄸ’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발음된다.